

授業의 質 향상을 위한 課題

金 正 漢

(東亞大 教育學科)

교육에 투자할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은 주로 현존하는 교직원의 人的 資源을 통하여 교육의 質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중심 과제는 授業의 質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교직원의 수업능력 개발, 교수·평가 방법의 효율화, 교수와 연구활동의 연계, 수업평가체제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1. 教授-學習의 位相

대학교육의 秀越性(excellence) 추구는 대학의 본질적 특성이며, 存在 意義로서 대학발전을 위하여 변치 않고 추구해야 할 영구적 과제이다. 대학은 급변하는 정보산업사회에 부응하고 지적·창조적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더욱 높은 학문의 質의 基準을 설정하고 수월성을 추구해 나가야 할 責務性이 있다.

대학교육의 秀越性은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며, 최선의 교육기자재를 도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등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하여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교육에 투자할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公共的 投資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은 주로 현존하는 교직원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교육프로그램의 質을 어떻게 변화시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느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 고등교육의 특징은 인적·물적·외적 秉賦의 시대가 후퇴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效率性 제고를 통하여 내실을 기하려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수월성은 곧 교육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質은 학생의 지적·학문적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Cartler가 “고등교육에서의 수월성 추구는 곧 教授(teaching)의 質에 대한 관심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중심도 바로 가르치는 일”이라고 한 말은 수업을 잘 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신뢰롭고 빠른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수의 가르침과

학생의 배움이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수업은 하나의 단순한 과업이나 직무가 아니라 대학교육의 주기능이며, 질 높은 수업을 실현시키는 것이 高等教育의 中心課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고등교육은 교육의 성과로 표현되는 학생의 지적·학문적 성장과 직접 연관이 되는 教授-學習의 질 관리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학의 핵심적 활동인 授業의 質 管理가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교수활동 결과에 대한 관심도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은 교육받은 사람의 質 提高를 통해 대학을 지원해 주는 사회의 여망에 부응해야 하며, 그 노력의 초점은 교수-학습의 개선에 모아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2. 教育의 質 改善 추세

국가·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質의 秀越性을 이룩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체제는 최대한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고등교육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는 대학교육의 목적 달성에 가장 중핵이 되는 교수-학습 활동에 대학의 힘을 집중시켜야 하며, 고등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다른 무엇보다 教授要員의 수업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교수-학습의 개선과 교수의 授業能力 제고를 강조하는 움직임은 여러 방향에서 찾아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직무수행의 질에 대한 관심, 책무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업지도성의 강조, 산업체 요구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職務遂行에 대한 관심 고조

교육문제 해결은 근본 가정이나 신념, 방법, 강조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교육운영이나 교직원의 직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세기 초에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에 중점을 둔 과학적 관리는 1930년대 '民主'를 증시하는 인간관계 운동에 밀리는 듯 하였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다시 학교조직의 안정지향적이고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한 반성의 기운이 두드러지면서 근무수행의 생산과 질에 대한 강조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움직임은 전통적으로 통제·책임·효율성을 강조하는 科學的 管理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나, 新과학적 관리(neo-scientific management)는 교직원의 자질, 직무수행 목표, 기초학력 증진(back to basic), 성과급 제도, 내용-효과 분석, 목표관리 등의 과업적 측면과 인간자원적 측면을 조화시키려는 것이 특색이다. 과학적 관리에서 관리자는 교직원을 面對面(face to face)으로 통제하였으나, 신과학적 관리는 교직원에게 직무에 대한 자율적 책임을 지게 하되, 合理的 統制 메커니즘이 엄격한 대면적 감독을 대신하게 된다. 신과학적 관리 형태는 교직원의 아이디어, 에너지, 헌신성, 전문성 등을 맡은 바 직무에 투입케 하고 그 결과에 대한 責任도 스스로 지게 함으로써 일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통하여 개인이 動機化되고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것이다.

미국이 1983년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놓은 '미국의 위기'나 1991년 부시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내놓은 '미국 2000: 교육전략' 그리고 일본이 1984년 내놓은 교육개혁안 등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新과학적 관리전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금 각국의 교육조직에서 강조하고 있는 직무자질, 근무수행평가, 수업의 질, 자율적 책임에 대한 강조는 신과학적 패러다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

2) 實務性에 대한 社會的 要求의 변화

대학은 학생인구의 증가, 투입자원의 규모 증대,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회가 부가하는 책임을 원수하고, 사회에 많은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

대학은 그를 지원해 주는 국가·사회에 대한 재정적 책무성보다 學問의 質에 대한 實務性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대학은 專門性을 갖춘 교직원이 주어진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質的 秀越性을 추구하고 있음을 사회에 확증시켜야 한다. 대학이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하는 성과는 인재나 평가의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는 다시 지원의 폭과 대학 자원의 양을 결정하는 준거가 됨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을 교육계가 져야 한다는 사회적 수준의 책무성과,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학교경영 수준의 책무성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직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個人的 수준의 質務性을 묻는 추세로 발전되어 나갈 전망이다.

3) 授業指導性的 강화

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라는 명제는 교육행정가의 역할개념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교육조직의 순조로운 관리와 행정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고, 교수-학습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수업지도성의 강조가 점점 증대되고 있다. 현대의 教育行政家는 행정·관리적인 면과 수업·교수에 관련된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

행정적 역할은 반복적·일상적·유지관리적 기능이 주종을 이룬다. 이것이 잘 수행되지 않으면, 교육의 정상적 활동이 위협받고 학교의 기능이 마비된다. 이에 반하여 授業指導性은 수업 상태를 개선하고 필요한 절차나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로 인하여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교육의 질적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능이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이 교수-학습의 개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면 교육행정의 강조점도 일상업무의 유지·관리활동으로부터 授業改善과 관련된 변인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직원평가, 직원개발, 교육과정 개발 등으로 그 중심을 옮겨 놓아야 한다.

대학교육은 학사관리, 시설의 확충, 행정조직 규모의 확대 등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양적 규모만으로는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수업개선이 현재의 제한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새로운 교육지도성이 요구되고 있다.

수업지도성의 강조는 教育目的 달성을 향한 교수-학습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데에 일차적 관심을 두며, 조직구성원이 응집성을 구축하고 협력하여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 관심을 둔다. 수업지도성이 잘 발휘되는 조직 속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데 調和的 關係를 가지며, 자극적·생산적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게 되고 변화와 개선을 위한 力動的 追求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學習環境을 조성하여 교직원의 재능을 교육효과 증진에 심분 투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4) 産業體 要求의 증대

UNESCO(1974)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교육』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교육받은 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육은 사회·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급변하는 산업체의 요구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오늘과 같이 과학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국제간 정보·지식패권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때에 대학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식창출과 인재양성, 그리고 사회발전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의심을 갖게 된다.

지금 산업계는 대학이 산업사회와는 거리가 먼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체가 요구하는 '상품' (salable product)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자격에 미달하는 학생을 배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은 너무나 오랫동안 학문과 이론을 가르치는 상아탑에 머물러 현실과 유리되어 있으며, 더욱이 늘어나는 교육인구는 질을 희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한다.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現場 適應力이 부족하여 3~5년간의 실습이 필요하고, 여기에 드는 추가비용만도 1인당 1년에 1천여 만 원이 들어간다는 어느 대기업의 보고는 학문세계와 기업간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교육인력의 질이 산업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직접 관련이 있고, 산업체의 성장이 고등인력의 취업기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은 산업사회의 요구를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다. 大學의 大衆化와 教育의 質 강화라는 두 가지 다른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오늘의 대학은 개인차가 뚜렷하고 수학능력이 다양한 학생을 어떻게 모두 잘 교육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as good as most)를 과제로 안고 있다. 또한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産業價値중심 교육과 산업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휴머니즘적·도덕적·정신적 가치를 존중하는 一般教育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대학교육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3. 授業의 質 改善의 과제

교육의 질은 수업의 질에 크게 좌우된다. 수업의 질은 수업을 운영하는 教授의 전문적 자질과 수업능력, 교수와 학생을 대개하는 教育課程의 質, 수업활동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學習環境의 質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교수의 전문성, 교육과정, 수업환경 변인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결과에 대한 公信用을 제고시키는 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선진 여러 나라의 교육개혁도 다른 어느 것보다 교육과정 개선, 교수행위의 효율성 제고, 수업지원 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수업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 상호연관된 과제가 많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교육과정이나 수업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제외하고 교수행위와 관련된 몇 가지 기본적 과제에 대해서만 예시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職員開發과 現職研修

대학교수는 전공학문 분야의 학자로서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수가 '가르치는 역할'에 얼마나 專門性을 가지고 어느 정도 效率性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대체로 고등교육에서 학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신념이 지배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수업의 질과 효과성 차원에서 보면 많이 알고 연구한 것과, 아는 것을 활용하고 이를 전달하는 능력은 별개의 요소로 취급될 수 있다.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지식·능력은 職前教育이나 現職教育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 상례인데,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에게는 교수 또는 수업 전문가로서 연수와 훈련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음은 특이한 일이다. 수업을 전문가답게 하기 위하여는 수업목표의 명료화, 수업계획의 수립, 수업전략과 유형의 결정, 학습자 요구·특성의 수업 반영, 授業過程 측면의 이해, 교수매체의 활용, 학습성과 평가 등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알고 이를 수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에서 수업 담당자는 수업 效果性 증대에 관심을 가지고 자율적인 자기연찬을 통하여 수업자질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대학당국도 교직원 개발의 차원에서 교수가 現職教育 기회를 통해서 수업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支援的 風土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미 거의 모든 대학이 교수요원 중에 수업과 교수방법의 전문인사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신입 교원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직원 연수회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수업개선을 목적으로 한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수의 수업능력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2) 教授 및 評價方法의 효율화

교수방법과 기술은 학습자의 학습능력을 촉진시키고 학습기회를 신장시키며, 학습유인을 통하여 학습자를 동기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하여는 교수 및 평가방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업활동의 주류는 전통적인 강의·교재·교수 위주, 지식에 대한 평가 등이다. 이러한 수업운영 방법은 학습자에게 수동적 지식(passive), 생동력 없는 지식(inert), 轉移價가 낮은 지식(low transferable) 등을 주입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더욱 생산적 사고능력인 비판력·분석력·통합력·창

의력 같은 고등정신능력 신장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수업담당자는 학문의 성격과 과목의 특성, 학생의 필요에 적합한 것을 개발·적용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학습성과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수방법, 학습의 개별화, 교육공학 활용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教授 및 評價方法의 改善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수업목표, 교과내용, 수업진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한 교수요목(syllabus)의 개발
- 학생의 참여의식 고취를 통한 질문·발표·토론 기회의 확대 및 학생참여도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
- 개별학습 과제나 독립 연구과제의 수행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평가하여 피드백을 제공
- 교수-학습에 필요한 정보·자료·기자재 등을 준비·확보하여 수강학생에게 제공
- 평가 기회의 확대, 방법의 다양화, 형성평가의 실시 결과를 교수활동에 반영하고, 기준지향평가(norm referenced)의 준거지향평가(criterion referenced)로의 개선 유도

3) 教授와 研究活動의 연계

대학교수는 수업, 연구·창작, 대학봉사, 공공봉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수와 연구활동은 가장 중심이 되는 역할이다.

교수의 수업 및 연구활동은 대학목적 달성을 위하여 統合的 調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사회에서는 연구중시 가치체계가 만연하여 가르치는 것보다 연구하는 일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직무수행 평가에 있어 연구업적 일변도의 편파적 운영, 연구위주의 대학원 중심 교육에 대한 기운의 확산 추세, 연구업적을 통한 성취감·인정감·자아실현 등의 심리·사회적 욕구 충족, 연구와 창작을 통한 사회봉사의 책무성 요구,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한 소속기관의 위신 향상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이 더욱 중시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대학사회의 研究 選好 경향은 상대적으로 수업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위축시켜 수업 준비와 수업의 효과성 증진 노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은 일차적으로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유도해 내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학생행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교수-학습활동이 중핵이 되어야 함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研究를 위해 지식을 탐구하는 대학과 學生을 위해 敎育을 하는 대학은 그 성격이 크게 다르며, 학생의 성장·발전을 추구하는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은 교수-학습과 연결될 때 그 의미를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수업담당자인 교수의 연구활동은 교수-학습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때 그 효용성도 제고되는 것이다.

4) 授業評價를 통한 教授 改善

외국에서는 교수에 대한 행정가의 근무수행평가와 학생의 수업평가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는 교원의 승진·보수·해임·신분보장 등 행정적 인사결정을 내리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교수 개인의 전문성 성장을 위한 교정활동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근무평가나 수업평가 등은 개인에게 행동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뿐 아니라 개인의 자질향상, 자발성 제고, 개인의 성장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評價의 必要性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계 일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근무수행평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평가에 대한 대학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밀려 활발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금기시되어 왔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교육의 질적 개선 추세와 교수사회의 책무성에 대한 움직임 등으로 대학 교수사회도 講義의 質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떤 대학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교수가 학생에 의한 강의평가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평가분야에서 매우 발전적 변화로 여겨진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장 바람직하고 용이한 평가형태는 교수가 자신의 수업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이다. 교수 자신이 자율

적 책임의식 아래 自己評價를 실시하여 수업과 관련된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는 것은 수업개선과 교수자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수의 수업 자체평가는 수업진행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수업담당자가 스스로의 평가준거를 통해 맡겨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결함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수업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대학당국은 評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 교수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기평가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大學風土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자기수업평가에 요청되는 다양한 도구와 자료, 수업관찰과 기록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구비 및 평가기술과 방법에 대한 자문인력을 확보하는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수업평가는 학습 주체인 學生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Blau와 Scott의 주장대로 학교가 객관인 학생에게 봉사하는 기능을 가진 조직이라면, 학생은 수업을 받는 당사자로서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미국의 경우, 학생의 수업평가가 모두 긍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수업에 관한 정보로는 [둘도 없이 명확한 자료가 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형성적 또는 총괄적 평가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學生의 授業評價는 ① 주요 수업목표 달성과의사소통 정도 및 인간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② 강의담당자, 교재, 과제, 수업내용, 교수방법, 학생흥미, 집중도 등 학생 행동변화와 관련된 요소들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알 수 있게 하며, ③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해 주고, ④ 교수의 수업진행과 관리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며, ⑤ 학생들이 수강을 결정할 때 교수 개인이나 과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의 수업평가는 교수들의 불만족을 수반하기 때문에 평가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이 [실시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고등교육 상황에 적용 가능한 수업평가에 관한 이론적·실천적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수업평가의 제도·절차·도구·결과활용 등의 결정에 대학 구성원을 폭 넓게 참여시키고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셋째, 수업평가가 윤리적·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성숙되어야 한다. 넷째, 수업평가가 교수의 자질향상에 활용되도록 평가체제를 개발하고, 특히 신뢰성·타당성을 지닌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5) 授業活動의 支援 강화

대학의 지원체제는 교수-학습의 여러 조건이 효과적으로 충족되도록 지원·정비해 주어야 하며, 대학행정은 敎壇 支援 중심의 행정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 및 기타 자원의 운영이 업적위주나 수용의 요구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신장시키고 교수의 창의적 재능을 자극해 줄 수 있는 質의 次元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의 시설이나 기자재 확보는 교육기관이 설정한 교육목표, 강의운영 형태, 강의계획 등 敎育課程 운영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교육적 필요성과 교육전문가인 교수의 의견이 행정가의 판단이나 건축사의 의지보다 앞서 반영되어야 한다. 敎授-學習 활동이 活性化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일반적 조건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서 낭비가 제거되고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시설 및 기자재를 활용한다. 둘째, 교육성과와 수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하며, 교수의 수업활동 개선 노력을 지원한다. 셋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보관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체제를 수립한다. 넷째, 도서관·시청자실 등에 있는 [인쇄매체·교육자료·교육기자재에 대한 홍보·안내·평가 등을 전문적·기술적으로 해 낼 수 있는 메체센터의 통합적 운영을 모색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연구 활동의 지원을 위해 교수의 요구를 수시로 분석하여 교수의 필요를 지원활동에 바로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 ■